

그게 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깨진 관계 회복하기

그게 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사랑과 영접과 기쁨과 평화와 희망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인 욕구와 소원과 꿈과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거나 “더 나은 이용가치”를 찾거나 하면, 그들을 무시하거나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기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의 주제인 듯합니다. 삶은 ‘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뉴스나 전국 혹은 지역뉴스를 보게 되면, 그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거리들입니다.

전쟁,	불행,	인간 밀거래와 노예
살인과 자살,	성적학대,	이혼,
불성실,	폭력,	언어/신체/정서학대,
빈곤과 굶주림,	갱단과 교도소,	금융사기,
정쟁싸움,	고소고발,	인종차별,
성차별,	깨어진 가정,	추문,
가난,	부패,	유기와 방치,
아동학대,	강간,	증오와 증오범죄,
강도,	불의,	알코올중독과 마약중독,
통제 안 되는 성병,	조작,	부모의 방치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현실을 해결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경찰, 정치인, 교도소, 법, 변호사, 판사, 종교, 정부주도 프로그램, 심리학자, 치료(therapy) 단체....

진실인즉, 사람은 마음의 문제에서 기인된 관계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C. S. 루이스(Lewis)는 저명한 역사가로서 한 때는 회의론자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생애 후반기에 쓰기를, “하나님은 그분 밖에서 기쁨과 평화(및 구원)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 말에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찾지 못할 거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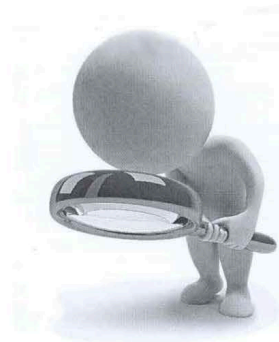
이것을 제시하는 목적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새롭게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영접을 획득하거나 받을만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런 방법은 그분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봅시다.

네 가지 제시들의 개요

1. 회복된 관계의 필요, 회복된 관계의 비용
2. 회복된 관계의 제시, 회복된 관계에서의 책임들
3. 회복된 관계를 갖는 단계들,
4. 회복된 관계의 몇 가지 독특한 결과들



To order materials visit:
www.peacetreatywithgod.com

© John Hende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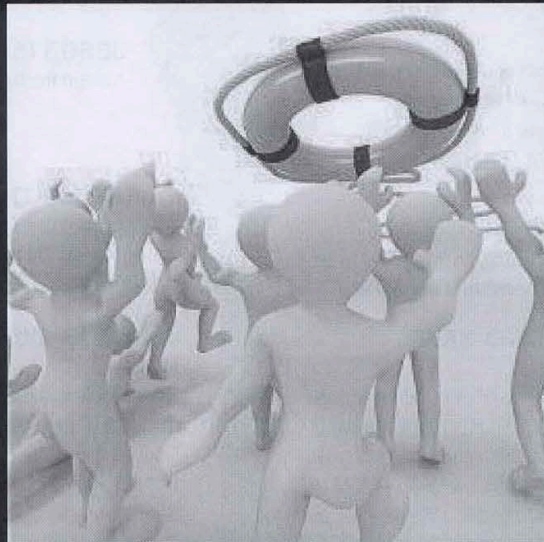
Unless otherwise noted all
scripture references are from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 1973,
1978, 1984 by International Bible Society.

그게 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제 1 과

회복된 관계의 필요

회복된 관계의 비용



하나님과 평화조약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회복된 관계의 필요

인간

하나님

성경은 말하기를...

목표지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롬 3:10,23>

결과: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롬 6:23>

하나님의 법들을 어겼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마 22:36-39>

결과: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갈 3:10>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엡 2:1>

결과: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다 아뢰어야 합니다.” <벧전 4:5>

맹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둠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
입니다.” <고후 4:4>

결과: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걸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
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요일 2:11>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습니다.”
<엡 4:18>

결과: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잠언 14:12>

무능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
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다.’”
<막 10:26-27>

결과: “그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엡 2:12>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나 경건함
으로써 혹은 나쁜 짓을 하지 않음
으로써 혹은 정통교회나 종교에 소속
함으로써 죽음의 협곡을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
습니다.

이사야 64:6: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
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
입니까?” <시 77:13>

하나님은 율법의 제공자
이십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약 4:12>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 <요 5:24>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 8:12>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요 14:6>

예수님은 도움의 원천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막 10:27>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관계의 비용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누가복음 7:16>

하나님의 성품, 능력, 놀라운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늘 대제사장으로 불립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이란 말은 ‘다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와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딤후 2:4-6>

치료가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면,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절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자유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만드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바로 그 피조물들의 손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죽음! 지불

하나님의 법들을 어겼습니다.
저주! 지불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지불

맹인입니다.
어둠속에 거주! 지불

길을 잃었습니다.
죽음! 지불

무능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지불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서 몰아내시고, 나 무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내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24>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13>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시다.” <에베소서 2:4-5>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시다.” <골로새서 1:13-14>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13>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류를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생명!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축복받음!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용서받음!

빛이십니다.
보게 됨!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방향!

도움의 원천이십니다.
희망!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디도서 3:4-5,7>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1>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 <요한복음 5:24>

제프리 대머(Jeffrey Dahmer)에 관한 예화

당신에게 4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18-19>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만큼 우리를 값지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관계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Max Lucado): 이 은혜와 자비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거지 중에 상거지를 왕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이 선물을 놓치는 것은 갑부 중에 갑부를 극빈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제 2과

회복된 관계의 계시
회복된 관계에서의 책임들



하나님과 평화조약을 통해써 관계를 회복하기

...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제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랑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시려고 노력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들어내시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서는 성경의 대략, 테마, 줄거리 전체를 설명합니다.

언약: 조약, 협약, 유언, 계약, 맹약.

언약은 적어도 네 가지 것을 갖습니다.

대상 - 언약을 맺는 자들: 하나님과 인간

약정 - 인간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하기로 합의한 것.

약속 -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용하실 때, 인간에 대하여 하시기로 합의한 것.

결과 - 인간이 하나님과 합의한 언약을 거부하거나 저버린 결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한 일련의 체결된 언약들의 역사입니다. 언약(covenants)은 계약(contracts)과 다릅니다. 계약은 이기적이고, 갑이나 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언약은 두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최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만을 하기로 합의하는 평화조약입니다. 따라서 언약은 사심이 없습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보호할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언약은 능동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창세기전부터 하나님은 인류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셨고, 삶의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1:1-2>

하나님의 계획은 일련의 언약들을 통해서 수세기에 걸쳐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은 로켓의 단(段)들과 같습니다. 캡슐은 로켓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닥의 1단에서 시작해서 올라가 봅시다.

5단 -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더 좋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히브리서 8:6).

4단 - 그리고 이스라엘(아브라함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출애굽기 19:5).

3단 -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창세기 15:18).

2단 - 그리고 노아와 두 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창세기 6:18, 9:9-11).

1단 -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호세아 6:7).



우리가 이들 언약들을 공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분은 항상 그분의 약속들을 지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5:4>

이전에 맺은 모든 언약들은 우리를 마지막 언약으로 인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시하실 새 언약, 곧 캡슐과 상급과 보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을 때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를 범 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15>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28>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6>

그게 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초청: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쉬음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28-29>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11>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 또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기 오래 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셨습니다.

- 루이 지그리오(Louie Giglio) -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창조이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동일한 것: 사랑을 통해 그분과 연합된 가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엡 1:5>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당사자들

우리의 하나님 또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사람.
모든 종족, 그것은 모두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족, 생활수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알코올중독자, 행음자, 중독자, 살인자, 이민자, 죄수, 실패자, 성공한 자, 경건한 자, 불경한 자, 대표자, 남자, 여자, 연장자, 연소자, 선한 자, 악한 자에게조차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강제로 들어오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초대받았으므로 그 초청을 반드시 받아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별난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 필립 앤시(Phillip Yancy) -

하나님의 새 언약을 수용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

모든 것이 새 언약 속에서 새롭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

새 것들

사랑-요한복음 3:16, 로마서 8:38
책망 받을 일이 없음-골로새서 1:22
죄 사함-사도행전 2:38 면책됨
부활-고린도전서 6:14, 15:51-53
영생-요한일서 5:11, 로마서 6:23
영원한 집/하나님과 함께 거처하는 곳-요한계시록 21:1-4
풍성한 삶-요한복음 10:10
기쁨-베드로전서 1:8
신생(거듭남)-요한복음 3:3,7
양자-에베소서 1:5, 로마서 8:15
가족-갈라디아서 6:10
그리스도의 임재(동행)-마태복음 28:20
매일의 도움-로마서 8:26-28, 빌립보서 1:6
심령(마음의 자세)-에베소서 4:23
목적-에베소서 2:10
시민권-빌립보서 3:20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고린도전서 3:16, 로마서 5:10,8:9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에베소서 3:21
확신-베드로후서 3:17
감격적인 승리-요한일서 5:4, 로마서 8:37
핍박당함-디모데후서 3:12
동기부여-고린도후서 5:13-14
시련-베드로전서 1:6-9

소망-고린도후서 3:12

사랑의 책망(징계)-요한계시록 3:19

이해(동정)-히브리서 4:15

유산(하늘에 간직됨)-베드로전서 1:4

담대히 나아감(은혜의 보좌 앞에)-히브리서 4:16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재물, 건강, 직업안정의 복을 약속하거나 문제와 시련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33>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로마서 5:1>

하나님의 새 언약을 수용할 인간의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마태복음 22:37-38>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마태복음 22:39>

새 언약에 관한 글들에 기록된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에 관한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과 특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축하시려는 것처럼 축하하는 것이고 우리가 환대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불려간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것들을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로마서 8:29). 예수님은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왕따 당한 사람, 외로운 사람, 거만한 사람, 내쫓긴 사람, 집 없는 사람,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고린도후서 7:1>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충명을 넘치게 주셔서...”
 <에베소서 1:7-8>

다움의 것들은 새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16>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35-39>

책망 받을 일이 없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22>

죄 사함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8> 면책됨.

부활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고전 6:14>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51-53>

영생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11>

죄의 삶은 죽음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23>



영원한 집/하나님과 함께 거처하는 곳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1-4>

풍성한 삶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0:10>

기쁨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8>

신생(거듭남)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3>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요한복음 3:7>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23>

양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15>

가족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갈라디아서 6:10>

그리스도의 임재(동행)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20>

매일의 도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8:26-28>

심령(마음의 자세)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4:23-24>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10>

시민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 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20>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고린도전서 3:16>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에베소서 3:21>

안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무법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17>

감격적인 승리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4>

핍박당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12>

동기부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고린도후서 5:14>

시련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6>

소망

또 우리는 앞으로도 견져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둥니다. <고린도후서 1:10>

사랑의 책망(징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요한계시록 3:19>

이해(동정)

우리의 대체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15>

유산(하늘에 간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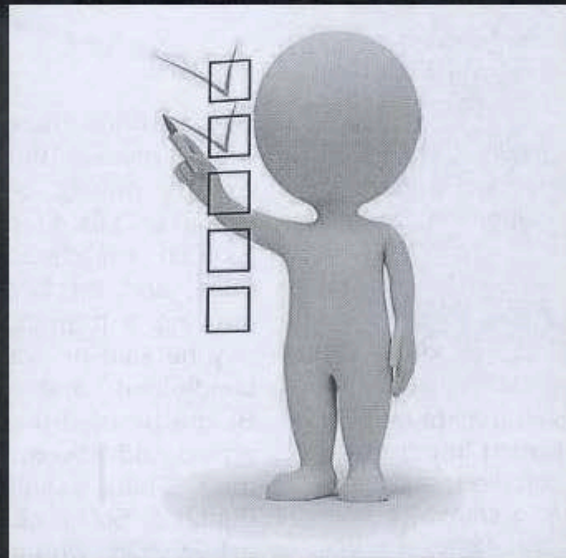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 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뎡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4>

담대히 나아감(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16>

그제 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제 3 과 회복된 관계의 네 가지 단계



하나님과 평화조약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회복된 관계를 갖는 네 가지 단계

제1단계 - 믿음

하나님과과의 새로운 관계는 그분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16>

믿음 또는 신앙은 또 다른 이에게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신실함, 발자취 기록,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역사에 기초하여 그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킬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철저하게 납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선한 행위들에 기초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27>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고, 구입할 수 없으며, 받을 가치가 있을 수 없고, 충분히 선할 수 없으며, 충분히 희생할 수 없고, 충분히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값없이 주시지만, 우리가 그분이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려거나 충분히 선해져서 천국에 가려는 시도들은 단지 탈진과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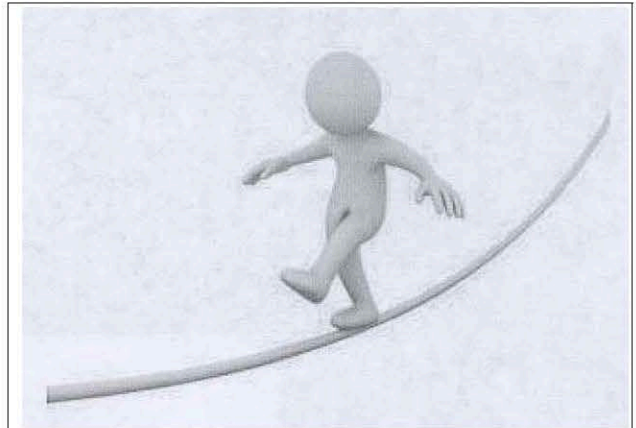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을 우리 자신들 속에서 사랑, 평화, 기쁨, 구원을 찾는데, 또 우리의 지성, 다른 인류, 천적, 배우자, 정치인, 정부, 군대, 교회, 거짓 종교, 이교, 목사, 사제, 명성, 아름다움, 부자, 능력, 자기 의로움, 혹은 선행을 찾는데 두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아래에 내려놓으십시오.

성서적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란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같은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증거에 입각한 것이란 것을 (당신의 머리로) 믿는 것입니다.

성서적 믿음은 지성적인 신앙뿐 아니라 응답까지 요구합니다.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17>



1860년대에 브론딘(Blondin)이라 불리는 줄타기 곡예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연을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일간의 공연을 위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습니다. 브론딘은 폭포 양쪽 끝을 잇는 외줄을 매달았고, 이틀간 이 줄 위를 걸었습니다. 이 공연을 보려고 엄청난 구경꾼들이 몰려왔습니다. 제3일째 날에 그는 두 눈을 갈리고 외마귀 수레를 밀면서 줄 위를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묘기를 보여주기 전에 구경꾼들 사이로 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묘기를 펼쳐 보일 수 있다고 믿습니까?” 구경꾼들 가운데 아무도 그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줄 위로 올라가서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누가 줄 위로 올라와 외마귀 수레에 타시겠습니까?”

몇 사람이 자원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사람이 그가 들은 말씀에 믿음을 갖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을 행함으로써 응답할 것입니다.

제2단계 - 회개

“하나님께서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7:30>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서 우리는 오순절(유대인의 축일)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읽습니다.

베드로의 결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6>

사람들의 응답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려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2:37>

이 물음을 묻는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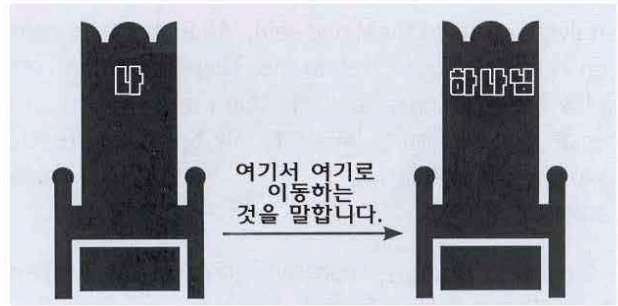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8>

회개는 “U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회개와 그리스도인의 회개 사이에 혼란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1. 예수님을 거부하던 것에서 그분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나의 여생동안 신뢰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2. 예수님께 대한 나의 충성이 다른 누구보다 혹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3. 그것은 의도에 대한 진술입니다. 마치 혼인 서약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본인에게 행하는 공약이고, 그 공약에 끝까지 신실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무엇 혹은 다른 누군가를 내 삶의 왕좌에서 끌어내고,

그 곳에 그분의 온당한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것입니다.

온당하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이 그분께 굴복하든지 혹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에게 굴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훼방하려고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좇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그 악마의 울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25-26>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 그분의 자비와 은혜는 우리를 회개에로 인도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로마서 2:4>

회개는 해방, 기분을 돌음, 신명남, 기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조종석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혹은 독립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3:19>

제3단계 - 고백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9-10>

결혼식에서 서약이나 혹은 심지어 부끄럽고 당혹스러우며 두렵고 확신이 없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신랑신부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제4단계 - 그리스도인 침례

“예수께서 다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18-20>

신약성서가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에서 침례하다는 말은 “담그다, 잠기다 혹은 침수하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는 오직 침수세례만 시행하였습니다.

예수님 생애 후 500년 지나서 일부 종교인들이 물을 뿌리거나 붓는 식으로 침례를 바꿔놓았습니다. 침례방식을 바꾼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역사 주: 교회는 주후 30년에 세워졌고, 약식세례가 공인된 것은 1311년 라벤나회의 때였고 찬반 동수로 표가 나와 의장의 찬성표로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침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교회가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은 침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 날짜에 대해서: 아무 날짜나
- 물에 대해서: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 주례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침례를 아무나 베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침례를 받지, 교단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충성과 복종에 대한 맹세 혹은 서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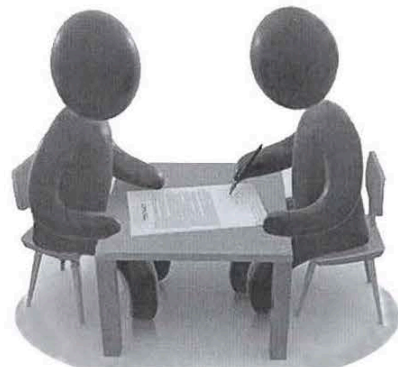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침례를 미리 보여 준 것입니다. 침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21, 공동번역>

헬라어로 ‘서약’(pledge)은 사업가들이 거래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매도인이 가격을 제시하면, 매수인이 살지 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매수자가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을 받아드리면, 매수자는 일어서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약정에 따라 살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 서약은 증인 앞에서 이뤄졌고, 협정의 최종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서약은 협정에 구속력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 혹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라고 말하고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계약의 최종단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약은 계약서의 점선 위에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협정은 양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맹세가 그리스도인 침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맹세를 십자가에서 하였고, 자기 피로써 서명하셨으며, 우리가 받는 침례로 거래를 인(seal)치십니다.



하나님은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27>

하나님은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8>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침례 때의 우리의 믿음과 복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당신의 죄를 씻어 주심을 받으시오.” <사도행전 22:16>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실제적인지 봅시다.

결혼계약과 그리스도와의 계약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이 “종교적” 이슈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이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혼과 기독교는 둘 다 계약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계약

그리스도와의 계약

이 관계는 “내가 찾던 그 사람을 발견했어.”라고 말하는 특별한 종류의 믿음과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이 관계는 “내가 찾던 그 사람을 발견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과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위해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고 말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랑은 자신보다는 사랑하는 이의 관심에 우선하고, 자신보다는 사랑하는 이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충실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대 먼저, 그대 뿐, 그대만으로 만족합니다.**” (단념할 다른 현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그분에게 신실하며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나보다는 예수님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 먼저, 예수님 뿐,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단념할 다른 현신이 있습니까?)

이 사랑은 결심한 바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이 믿음은 결심한 바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이 사랑은 결혼식으로 이어집니다.

- 결혼식은 하나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 나눴을 삶을 살기 위해서 독신의 삶을 단념하고 버립니다.
- 그게 다 충성서약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침례가 그리스도와 맺는 계약식인 것은 혼인이 결혼계약식인 것과 같습니다. 침례식은 하나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나눴을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단념하고 버립니다. 그게 다 충성서약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우자와의 결혼계약의 모든 혜택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앉아서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깊이와 질은 활발히 보인 자비와 은혜의 양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계약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의 모든 혜택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앉아서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깊이와 질은 당신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계약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배우자가 앞으로 신실할 것이라고 누구에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신실하실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 관해서 그분이 제시하신 것을 당신은 어느 과정에까지 수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볼까요?

그게 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제 4 과
회복된 관계의
몇 가지 독특한 결과들



하나님과 평화조약을 통해세 관계를 회복하기

그리스도인에 관한 어떤 사람의 정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미 간주한 그런 자신이 되어가는 사람이다.” (저자 미상)

비슷한 진술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그분은 한 번 자기를 바치심으로써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셔서 그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14>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위치(영적 신분)에 의해서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종종 우리의 의롭다하심으로 언급됩니다.)

우리의 상태(영적 본질)는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종종 우리의 성화로 언급됩니다.)

우리의 위치(영적 신분):

위치: “...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20>

선물: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8>

불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13>

만인 평등: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28>

새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

우리의 상태(영적 본질):

여정: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6>

점진적 소행: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디모테전서 4:7-8>

변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3:18>

불평등(차별성):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갈라디아서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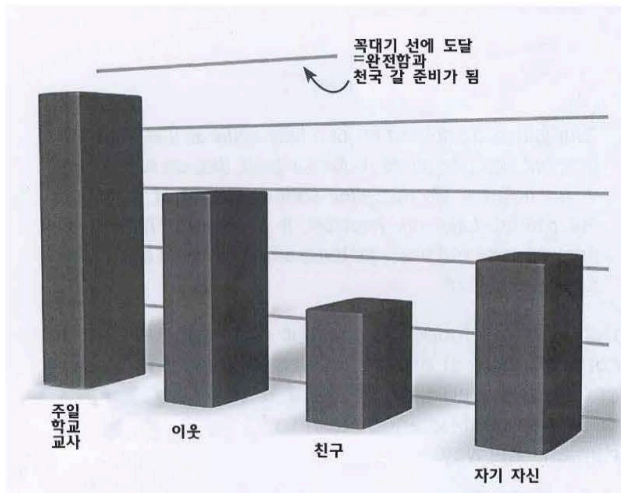
새 태도: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방식에 얽매어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서 4:22-24>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영적 신분)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형(성화)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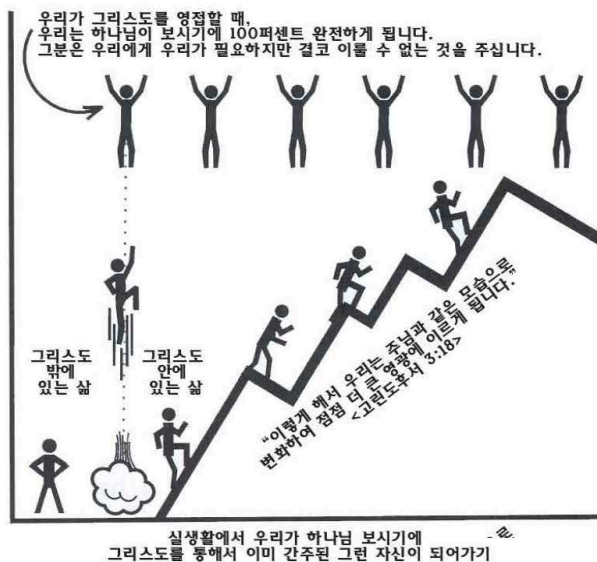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서 있는 곳과 도달해야 하는 곳을 비교해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즉각 100퍼센트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 -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우리의 위치(영적 신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상태를 치유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분은 한 번 자기를 바치심으로써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셔서 그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14>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8-9>

우리의 위치(영적 신분)는 발전하고 변형(성화)하면서 우리에게 생애 끝까지 평화와 기쁨과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6>

이 구절에 따르면, 언제 하나님은 우리의 변형(성화)을 끝내실까요?

결론: 우리는 우리의 상태(영적 본질) 때문이 아니라, 위치(영적 신분)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영적 신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17>

상기한 결론은 거의 언제나 물음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선하다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즉 우리의 상태(영적 본질)가 중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새 언약에서 발견된 대답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2:16>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1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상태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수용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 월터 트로비시(Walter C. Trobisch) -

이 모든 것의 이해가 우리의 삶의 동기를 바꿉니다. 만약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그래서 내가 내 구원을 얻기에 충분히 선하게 보인다면, 나의 동기는 두려움이며, 나는 자기중심, 덮기, 부인하기, 비교하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내 행함이 충분했는지를 결코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들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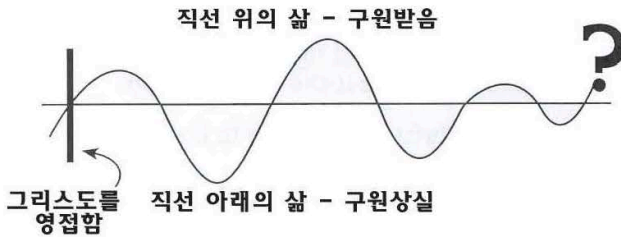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의 사랑과 고마움과 나의 구원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그분께 보이는데 선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없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이미 다 행하셨다는 것을 항상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버둥거립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것은 변형(성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직선 종교”라 불리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출발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직선 아래의 삶으로 추락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느낍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또 죄를 지을 때까지 다시 직선 위의 삶을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심이 일어납니다. “나는 직선 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직선아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안정감과 안심감을 잃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일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더우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9>

고백하는 것은 “미안 합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저질렀습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우리가 행한 것이 죄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진실을 위해 통신선을 개통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숨길 때, 우리는 그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와 마음을 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파괴적 행동과 태도에 더 기울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계 3:19>

그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히브리서 12:10-11>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징계의 형태는 우리 자신이 선택한 길을 지속해서 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의 길로 돌아가기를 결정할 때까지 또 그분과 그분의 길을 신뢰할 때까지 그리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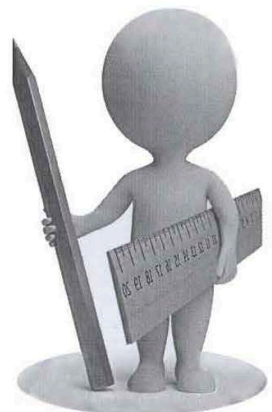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는 상심은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후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상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7:10, 공동번역>

따라서 고백은

-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고,
-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거슬러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며,
- 돌이키고자하는 우리의 의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며,
- 해를 입은 관계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회복시킬 것을 찾겠다고 우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용서를 구하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속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용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주신 용서에 감사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 스텝을 밟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게 펜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줍니다.” <요한일서 1:7, 공동번역>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 질문이 있습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 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31-39, 공동번역>

개입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 영적 여정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1. 갖고 계신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2.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3. 그룹모임이나 주일예배에 참석하십시오.
4. 이 하나님과의 평화조약을 어떻게 활용하실 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5. 당신의 여생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며 보내십시오.

- 저자: 존 헨디(John Hendee, Chair of World Evangelism at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 번역: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번역에 사용된 성구는 다른 설명이 없는 한 <표준 새 번역>에서 인용된 것입니다.